

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농경지 침수예방 철저한 대비

윤 차진형기자 | 승인 2025.07.22 17:19 | 10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용·배수로 체계적 관리로 재해 예방



▲ 용·배수로 퇴적물 제거 작업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서정훈)는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장 43개소와 1799km에 달하는 용·배수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수장 43개소에 대한 사전 시운전과 10회에 걸쳐 45km에 달하는 용·배수로 퇴적물 제거 작업을 진행해 재해예방에 힘썼다.

특히, 17일부터 19일까지 약 180mm의 강우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함께 2026년부터 운영 예정인 칠산2배수장을 공사 중인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가동

을 통해 추가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부산지사는 농경지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용·배수로와 배수장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재해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이러한 적극적인 재해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차진형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진형기자